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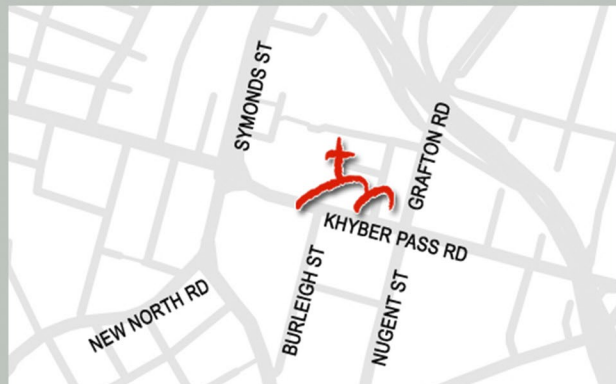
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 
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

- 이번 주 수요일은 베트남 공동체 주관 수요 예배입니다. 공동체가 협력하여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.
- 수요예배 후에 5월 정기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.
-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.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.
- 이단인 구원과의 박옥수 집회가 6월 6-7일 보다폰 이벤트 센터에서 있습니다. 현혹되지 마시고 주변에서 문이 오면 참여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바랍니다.
- 이태한 목사는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(KPCA) 참석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기도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(총회 부 회의록 서기로 선출).
- 새벽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.

[6월 교회 사역]

- 6월 7일(금) 금요 저녁 기도회
- 6월 9일 (주일) 성령 강림 주일
- 6월 26일 (수) 선교회 주관 예배
- 6월 30일 (주일) 성찬 주일

INFO



[예배시간안내]

주일 1부예배	주일 11:20 am
주일 2부예배	주일 1:00 pm
청년예배	주일 3:15 pm
수요예배	수 7:30 pm
새벽기도	금 5:30 am
유아부	주일 1:00 pm
청소년부	주일 1:00 pm

[섬기는사람들]

담임 목사	이태한
부목사	이성철
부목사	이성훈

www.calvary.org.nz  
www.youtube.com/calvaryorgnz  
www.koreaniptv.co.nz

**70 Khyber Pass Rd, Grafton, Auckland**  
(Ph) 09-369-5077 (Mb) 021-968-388  
LTH-07@calvary.org.nz

주일예배

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

인도: 이태한 목사

찬양	주일 찬양단
예배로부름	시편43:3-4 인도자
찬송	10장 다같이
신앙고백	사도신경 다같이
찬송	284장 다같이
대표기도	김병진 목사
성경봉독	시편 103:1-5 인도자
찬양대찬양	찬양하라 나무십자가찬양단
설교	마음의 병을 치료하십시오 이태한 목사
찬송	436장 다같이
헌금기도	인도자
교회소식	인도자
응답송	445장 다같이
축도	이태한 목사

■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.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.

수요예배

수요일 오후 7시 30분

기도	이병대 집사
성경봉독	마태복음 24:15-28
특송	베트남 공동체
설교	[독수리가 주는 교훈] 이태한 목사
찬송	240장
주기도	다같이

청년예배

주일 오후 3시 15분

금주기도	박상영 형제
다음주일	박민주 자매
-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	
- 오늘 주일 청년 예배후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	

[5/6월 기도 순서]

- 5월 29일 (수) / 최희숙 집사
- 6월 02일 (주일) / 김철재 집사
- 6월 05일 (수) / 한누리 집사
- 6월 09일 (주일) / 박병민 장로

[6월 예배 봉사자]

- 예배 안내 / 손조훈, 고미현
- 새신자 안내 / 차영철, 심경순
- 주차 안내 / 김교섭, 민광호
- 주방 봉사 / 박제란, 김명옥, 김민경



해/외/한/인/장/로/교/회  
**갈보리교회**  
교회창립 1999 / 07 / 18

2019/05/26  
21권 21호

배우고  
확신한  
일에  
거하라

디모데 후서 3:14

## MISSION

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 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.

성도 여러분,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?

여기는 지난 4월 중순에 종일 눈이 내렸고, 그 후 한여름 같은 날씨였다가 다시 서늘했다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.

### 근황

바람이 잦고 먼지가 많이 날려서 알려지가 한 달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 밤에 코막힘이 더 심해져서 잠자기가 힘든데 제발 잠을 푹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학원은 이달 말에 시작되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몇 개 반이 수업을 마무리했으며 저도 영어 시험(IELTS)을 치루는 학생들이 수업을 끝내서 오전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.

### 전통 예식

지난 달 G&E 부부의 첫째 딸 B가 결혼식 전 치는 전통 예식을 했습니다. 예비신랑과 부모, 그 친지들이 G&E 집에 왔습니다. 교회 성도들도 초대받아 G&E 친지들과 함께 했습니다. 예식 초반에 양머리가 담긴 접시를 차례로 돌아가며 스푼으로 떠먹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잔치에 빠져서는 안되는 보드카와 술이 없었는데도 아무도 불만 없이 모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해서 특별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어난 G&E 손녀를 요람에 처음 태우는 전통 예식도 했습니다. 여성들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날, 결혼 전 예식과 함께 이 나라의 전통을 볼 수 있어서 특별했고, 술 없이 축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.

### 부활절

예배를 G&E 집에서 드렸습니다. 미리 일찍 가서 상을 차리고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. 특별한 날이라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. N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. 이어 아이들의 말씀 암송, 자매들이 울동을 하고 함께 먹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.

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 듯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약함을 토로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행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주님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.

### 기도해 주십시오

-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
- 방학이 다가오는데 수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생(성인반)이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
- 알려지로 인한 코 막힘이 밤에 더 심해집니다. 밤에 자주 안 깨고 푹 잘 수 있도록

## PRAYER

1. 갈보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.
2. 성령 충만으로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도록.
3. 병환과 삶의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도록.

## SHARING

주보 3면은 갈보리 공동체의 자유나눔 공간입니다. LTH-07@calvary.org.nz으로 나누고싶으신 내용을 보내주세요.

### ‘여주와 울산’

이번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서울 외에 두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. 한 곳은 경기도 여주이고, 또 한 지역은 울산입니다. 여주는 서울에서 불과 100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울산은 서울에서 300km 훨씬 넘는 먼 거리입니다. 그러나 여주는 한 곳에 잠시 어른을 찾아뵙고 기도하고 왔을 뿐인데 거의 하루가 걸렸고 울산은 가서 불일 몇 군데 보고 점심 식사도 맛을 느끼며 여유 있게 먹고도 시간이 남아서 원래 샀던 표를 한 시간 앞당긴 표로 바꾸어 타고 다시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도 오후 5 시경이었습니다.

여주와 울산의 거리 차이만큼이나 하루 삶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. 울산은 ktx 열차를 타고 한 번에 갔고 여주는 전철과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갔기 때문입니다. 물론 객관적이지 못한 비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한 하루였습니다.

왜냐면 우리 생활이 이렇다는 생각 때문입니다. 우리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때가 있는가 하면 쉬운 일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방법에서 오는 차이입니다.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을 모르면 오래 걸리거나 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, 내 힘으로 하기 힘들어 보여도 방법만 알면 쉽게 빨리합니다.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. 쉬운 인수분해도 공식을 모르면 풀지 못합니다. 하지만 어려운 미분 적분도 공식만 알면 쉽게 풀어 낼 수 있습니다.

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법, 인생의 공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? 그것은 바로 ‘기도’라는 공식입니다. 기도는 우리 인생을 빠르고 바르게 이끌어 가는 ktx와 같습니다. 아니 ktx 보다 더 빠르게 풀어가는 공식입니다. 5월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. 2019년의 5개월을 보내면서 쉬운 일인데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인데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? 신앙인의 삶의 공식인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는 내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쉽게 또 빨리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. 이 기도라는 공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.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요 공식인 ‘기도’를 마음껏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.

이태한 목사

## 성경말씀 외우기 4

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 
- 로마서 8장25절